

2019년 2월 23일 시행 서울시 9급 영어 정답(B형)

1	2	3	4	5	6	7	8	9	10
1	1	2	3	4	1	1	4	4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3	1	3	3	2	4	4	3	3

* 특징 : 독해 6문제를 제외하고는 어휘와 어법 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해는 18번을 제외하고는 평이했지만, 어휘의 경우 문맥으로 추론하기 어렵고 그 단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어려웠습니다. 어법은 12번의 경우 예문이 너무 어렵고 어휘 수준도 높은데다, 문법 포인트도 기출에서 벗어난 내용이었어서 꽤 어렵다고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를 다 맞히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고득점 결정 문제 6개

- 어휘 5번의 경우 유의어의 미묘한 차이까지 구별해야하는 문제입니다.
- 어휘 7번의 경우 평소에 보기 힘든 ‘cozen’이라는 보기 힘든 단어가 출제되었습니다.
- 어휘 8번의 경우 단어의 구체적인 뉘앙스와 연어(자주 함께 어울리는 단어)까지도 알아야 확신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독해 9번의 경우 보기 ‘obituary’를 ‘사망자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그냥 ‘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짤막한 광고’로만 이해하면 망설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 어법 12번의 경우 처음 보는 ‘trust’의 용법이 나왔습니다. ‘suffice’를 몰랐다면 ①번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 독해 18번의 경우 (E)와 (D)의 순서는 확신할 수 있지만, (C)-(A)-(B)로 연결시켜도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여 ①을 정답이라고 생각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이라는 문제의 조건 때문에 답이 4번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해설

01. 어휘

정답 : 1번

해설 : play havoc with ~: ~에게 큰 해를 끼치다

02. 생활영어(속담)

정답 : 1번

해설 : 왜 나랑 자꾸 싸우려고 하냐는 A의 말에, B가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안 싸울거야' 라고 가정법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싸움 거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다, 즉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It takes two to tango.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가 적절합니다.

03. 어법

정답 : 2번

해설

① 완료형 분사구문 Having never flown이 적절합니다.

② Scarcely가 문두에 나와 도치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적절합니다.

③ local school board의 일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being elected로 바꾸어야 합니다.

④ would rather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합니다.

04. 어휘

정답 : 3번

해설 : make a face : 인상을 쓰다 = grimace : 얼굴을 찡그리다.

05. 어휘

정답 : 4

해설 : guffaw : 너털웃음, 큰 웃음 = ④ belly laugh : 큰 소리 웃음

06. 어휘

정답 : 1

해설 : plummet: 곤두박질치다, 감소하다 = ① plunge: 처박히다, 감소하다

07. 어휘

정답 : 1

해설 : cozen ~: ~을 속이다, ~을 홀리다 = deceive ~: ~을 속이다, ~을 기만하다

08. 어휘

정답 : 4

해설 : 가족이 던지는 몸무게와 관련한 부정적인 평가는 섭식 장애의 발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④‘pivotal’ : 중요한, 중추적인. ③번 ‘treacherous’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라는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뒤에 event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09. 독해

정답 : 4

해설 : Cathe라는 인물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보기 중 ④번 ‘obituary: 사망 기사’가 인물의 개인사를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입니다.

10. 독해

정답 : 1

해설 : 빈칸 앞의 내용이 실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모험과 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빈칸 다음의 문장은 발전과 혁신은 모험과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내용이므로 그 가운데에는 모험과 도전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11. 어법

정답 : 4

해설

- ①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뒤에 ‘identified’라는 타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상 2003년에 확인된 바이러스로 ‘was identified’라는 수동태가 되어야합니다.
- ② ‘dies’가 형태상 ‘causes’와 병렬구조인데, 주어인 ‘Infection’이 죽는다는 것은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 ③ It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앞 문장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It is believed (that)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 2003년도의 발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과거 시제인 ‘spread’가 맞습니다. 수일치 문제가 아니며, spread는 자동사 타동사로 모두 가능합니다.

12. 어법

정답 : 3

해설

- ① ‘trust ~ to ...: ~을 ...에게 맡기다’ 에서 ‘~’ 부분이 길어지면서 ‘to ...’와 자리를 바꾼 형태입니다.
- ② ‘No doubt S V : S가 V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 ③ ‘suffice’는 자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이므로 수동태가 부적절합니다.
- ④ ‘adduce ~: ~을 증거로서 제시하다’라는 타동사로 수동태도 적절하고 의미도 맞습니다.

13. 어법

정답 : 1

해설

- ①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뒤에 'crossed'라는 타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형태상 이상합니다. 의미상 'line'은 '넘어지는(crossed) 것이므로 수동태인 'is crossed'가 맞습니다.
- ② 주어가 'Hollindale'로 단수이고 의미상 현재 의미이므로 단수 동사 'notes'가 나왔습니다.
- ③ 강조의 조동사 'does'입니다. 역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적절합니다.
- ④ 부사구 for example이 문장 맨 뒤로 간 것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자유로우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14. 어법

정답 : 3

해설

- ① 3인칭 단수 주어 'it' 뒤에 'symbolizes' 단수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도 있으므로 의미적으로도 적절합니다.
- ② 뒤의 명사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 'sophisticated'입니다. '정교한 방식'이라는 의미도 적절합니다.
- ③ 'take over ~: ~을 따라잡다, ~을 대체하다'인데, 문맥상 목적어가 분명하면 'take over'로 자동사처럼도 사용 가능합니다. 의미상으로도 한글이 따라 '잡힌' 것이 아니라 따라 '잡은' 것이므로 수동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occur는 여기서 등장한다는 의미로 역시 1형식 자동사입니다. 주어가 복수이므로 'occur'로 복수형을 썼습니다.

15. 어법

정답 : 3

해설

- (A) 형태적으로는 모두 부사절 접속사로 적절하고, 의미적으로는 모두 불가능하진 않지만,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의 'until'이 가장 적절합니다.
- (B) 'Mr. Huang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활동가와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로 'according to'가 가장 적절합니다.

16. 어법

정답 : 2

해설

- (A) 타동사 'figure out'의 목적어로 명사절인데, 뒤에 주어가 없으므로 'what'입니다.
- (B) 역시 전치사 뒤에 의문사절이 목적어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뒤 절의 'look'이 자동사이고 뒤에 형용사가 필요한데 없으므로, 형용사를 받는 의문사 'how'가 적절합니다. 의미적으로도 '어떻게 생겼을지'가 맞습니다.
- (C)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that', 'which' 둘 모두 가능합니다.

17. 독해

정답 : 4

해설 : 'stereotype'이 무수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분류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경제적으로 만들어준다는, 'stereotype'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글입니다. 빈칸이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stereotype의 도움 없이) 늘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면(가정법 과거),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wearing) 과정이 될 텐데'입니다.

18. 독해

정답 : 4

해설

제시문 : 1480년대에 다빈치가 다양한 과학적 방면의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B) 'drawings(그림)'외에도 '연구(studies)'도 훌륭했다고 합니다.

↓

(C) This(B에서 말한 위대한 '연구(studies)'가 많다는 것)이 군사 장비와 비행 기계의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A) 'These drawings'는 (C)의 'designs'를 대신 받고 있고, 'airworthiness: 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B)에서 다룬 비행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 'any such undertaking'은 비행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그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다빈치가 알았다고 합니다.

↓

(D)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다빈치는 계속 비행 기계에 대해 그리고 연구했다는 내용입니다.

19. 독해

정답 : 3

해설 : 빈칸 앞에서는 'steer(거세한 새끼 수소)'에게 밧줄을 던져서 감아야만 하는 이유가 약물 치료 혹은 재산 표시라는 의무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빈칸 문장에서는 'bull(거세하지 않은 성체 수소)'의 등에 올라타는 행위는 순전히 스포츠를 위한 목적이라는 내용이므로 역접의 연결 부사가 적절합니다.

20. 독해

정답 : 3

해설 : 인간이 가진 가장 별난 특징 중의 하나가 몸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